

아시아 地域의 袈裟 着用現況에 關한 考察

김 경 속 · 안 명 속*

광주대학교 디자인학부 의상전공 강사 · 광주대학교 디자인학부 의상전공 교수*

Study on Contemporary of Kasaya in Asia

Kyung-Sook Kim · Myung-Sook An*

Devison. of Design, Kwangju University lecture
Devison. of Design, Kwangju University Professor*
(2000. 8. 24 투고)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the contemporary *kasaya* of each country in Asia, focussing on the *Kasaya Kongyang* ceremony and *kasaya* varieties. As well, the countries in Asia were divided into the southern Buddhist countries, northern Buddhist countries, and Tibetan buddhist countries, and were comparatively analyzed.

1. In terms of the *Kasaya Kongyang*(供養) ceremony, now days the southern Buddhist countries perform the *Katina* ceremony, passed down from the time of the Buddha. In the northern Buddhist countries, namely China, the *kasaya* is bestowed to the monk at the end of the precepts ceremony, while in Korea, the *kasaya* is bestowed to the monk at the end of the ceremony of "opening the eye" of an image. There is no *Kasaya Kongyang* ceremony in Japan and Tibetan Buddhist countries.

2. In terms of the varieties of *kasaya*, because the *Katina* ceremony is performed with 5 *jo*(條) in southern Buddhist countries, their *kasayas* are made up of 5 *jo*, with the exception of Myanmar's *sungari*.

In Taiwan and Korea, which are of the Zen(禪) order and part of the northern Buddhist countries, there are 5-25 *jo*. In Japan, which is of the Kyo(教), or doctrinal order, it is made up of 5-9 *jo*.

The Tibetan Buddhist countries have only *jo* that are 7 and 23.

In conclusion, when Buddhism was transmitted from the southern Buddhist countries to the northern Buddhist countries, we can see that the *Kasaya Kongyang* ceremony and the form of the *kasaya* itself changed from practical robes to majestic ones, in accord with the Mahāyāna doctrine of saving all sentient beings. Therefore, the *kasaya* simbolizes the Buddhist philosophy that Mahāyāna claims the existence of many Buddhas at one and the same time.

Key Words : Asia(아시아), Contemporary Kasaya(現行袈裟), Kasaya Konyang Ceremony(가사공양의식), Kasaya Varieties(가사종류)

I. 서론

불교는 오랜 역사에 걸쳐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동양의 여러 나라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진리성(眞理性)·적응성을 바탕으로 불교는 다양한 민족이나 국가와 융화, 섭렵, 적응하여 각기 다른 고유한 특성들을 보여주게 된다. 인도를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의 뼈대를 유지하면서도 종래의 습속과 신앙을 상황에 맞게 변형, 적응하여 왔던 것이다. 이들 여러 지역에서 불교는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만나게 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성전의 용어와 가사 문화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따라서 불교의 범복인 가사도 모든 문화와 풍속을 융화(融和)·섭합(攝合)해 왔기 때문에, 시대와 지역에 따라 양식이 다른 물론 특수한 상징적 의미를 함축하게 된다. 가사는 처음부터 꿈로부터 해탈이라는 교리적 의미를 내포하면서 중생구제(衆生救濟)의方便(方便)으로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가사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형태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폭넓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대승불교권(大乘佛敎圈)의 가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반 재가 신도로 하여금 가사를 승보에 공양(供養)하게 함으로써 가사에 석존께 귀의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다.

그동안 국내의 가사에 대한 연구는 율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가사가 시대와 환경을 반영하는 의복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여 왔음을 염두에 둘 때, 연구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시아 지역 각국의 가사도 그 나름의 특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실제로 착용하고 있는 가사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現行 아시아 지역 各國의 袈裟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에 머물고 있으며¹⁾ 전반적인 연구와 분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연구는 가사를 통해 아시아 불교 복식 문화의 창조력과 추진력을 알 수 있게 하는 동시에, 한국 불교에 있어서 가

사의 통일과 개선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래의 복식 연구와 복식 디자인에 있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줄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과 출처는 아시아 지역에서 현재 착용하고 있는 실물 가사로 이 원경스님, 태종사의 소장품과 대만의 佛光寺, 한국의 조계사, 봉원사, 구인사, 진각종 통리원, 일본 太平寺, 金剛峯寺, 웨덱스님 가사이다. 연구의 범위는 아시아 지역 가사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가사공양의식, 가사의 종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우선 남방불교권(南方佛敎圈)의 대표적인 국가인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의 가사를 하였다. 남방불교권의 국가는 종단별(宗團別) 가사의 특징이 별로 없어서 종단을 무시하고 고찰하였다. 그리고 대승불교권에서는 북방불교와 티베트불교국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북방불교권(北方佛敎圈)의 대표적인 나라였던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라는 특수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불교적 전통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대만의 것을 대상으로 삼았다. 대만은 단일종단(單一宗團)으로, 가사가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종단별로 가사가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한국의 가사는 대표적인 4대 종단인 조계종(曹溪宗), 태고종(太古宗), 천태종(天台宗), 진각종(眞覺宗)을 살펴 보았다. 일본은 교종(敎宗)에 속하는 법화종(法華宗), 진언종(眞言宗)만을 알아보았다. 연구의 한계점으로 일본은 종파의 범주가 너무 커서 일본 선종의 경우는 다음 기회에 조사하고자 한다. 티베트불교국가는 티베트와 몽골의 가사를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은 가사공양의식은 문헌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가사의 종류는 실물가사를 중심으로 구조, 크기, 봉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식화하였으며 색, 착장구 등을 알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였다. 이론적인 뒷받침을 위해 불교의 삼장(三藏) 및 기타의 문헌을 참고하였다. 가사 구전에 대해서는 티베트가사의 내용으로 법납²⁾이 십년이 넘는 티베트스님과 면담한 내용을 인용하였다.

연구내용은 이론적 배경으로 울장에 나타난 가사 공양의식인 카티나[功德]衣에 대하여 먼저 고찰하였다. 그리고 조사된 가사공양의식·가사의 종류를 바탕으로 각국의 가사의 특성들을 비교, 고찰하였다.

II. 律藏에 나타난 袈裟供養儀式

일반적으로 불교초기 교단의 행사에는 포살(布薩: uposatha)³⁾·안거(安居: varsika)⁴⁾·자자(自恣: pavarana)⁵⁾·출가(出家)⁶⁾·수계(授戒)⁷⁾ 등의 작법(作法)이 있다.

가사공양의식은 《律藏》에는 안거를 마친 승려에게 공양한 가사를 모아서, 대중(大衆)⁸⁾ 앞에서 가사를 주는 의식이다. 현재에는 국가에 따라 안거와는 상관 없이 행해지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의식에는 신도가 동참하여도 가사를 주고 받는 것은 아직 《律藏》에 근거하여 승려만이 할 수 있다.

가사공양의식은 《四分律》⁹⁾에는 카티나衣[功德]衣에 기록되어 있다. 카티나衣의 기원은 붓다가 슈라아바스티이니라에 계시적에 여러 비구들이 코오살라나라에서 안거를 하였다. 15일에 자자를 하고 16일에 부처님을 뵈오러 갔다. 그들이 길에서 비를 만나 옷이 모두 젖으니, 큰가사가 몹시 무거웠다. 그때에 붓다는 “안거를 마치고는 공덕의를 받아야 하고, 공덕의를 받을 때는 새옷이든 시주가 보시하는 옷이나 쓰레기 옷을 얻거든 그것이 새옷이건 헌 옷이건 새 조각을 부쳐서 깨끗이 하고, 만일 이미 빨았거든 빨은 뒤에 들여 놓아 깨끗이 하고, 사된 생활로 얻지 않고, 형상으로 얻지 않고, 묵으면서 얻지 않고, 깨끗이 하라. 그리고 그날에 오고, 법에 맞고, 사방에 두루 연(緣)이 있고 5조에 열칸이 막혔거든 공덕의 옷으로 삼으라. 반드시 대중(大衆) 앞에서 받으라. 그러면 대중이 공덕 의 받기를 끝낸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팔리를 카티나 의건도(衣健度)에는 ‘5조 또는 5이상을 당일[即日]에 재단하고, 연(緣)을 봉제하면, 공덕의를 받는 것은 이뤄진다고 하였다.’¹⁰⁾

이상에서 붓다 재세 시에는 승려가 얻은 모든 물건을 똑같이 분배하였기 때문에 신도만이 승려에게 공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와 승려가 함께 승려에게 보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사를 분

배할 때는 대중 앞에서 받으라고 한 것은,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공덕의를 맡아서 분배할 사람을 뽑는 의식문은 “승려들이 때에 이르렀거든 들으시오. 대중은 아무 비구를 뽑아서 대중의 공덕 옷을 맡기겠다. 어느 장로께서나 대중이 아무 비구를 뽑아서 대중의 옷을 맡기는 일을 승인하면 그를 인정하고 받아 들이라. 누구든지 승인하지 않으면 말하라. 승려들이 이미 승인하니, 아무 비구를 뽑아서 대중의 옷을 맡기고 승려가 승인하므로 이 일을 이와 같이 지니겠다.”라고 한다.¹¹⁾

그외 공덕의에 대한 의식문이 갈마(羯磨)¹²⁾에 나온다. 공덕의를 받아 지니는 사람이 낭독하는 선언문, 공덕의를 수여할 때 옷을 주는 사람이 낭독하는 선언문 등이 있다. 그리고 대중들이 각자 공덕의를 받고서 낭독하는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옷을 받는 자는 이미 잘 받았다. 이 일에서 얻어지는 모든 공덕은 나에게 속할 것이니 저들 역시 그렇다고 대담하여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III. 各國의 袈裟供養儀式

1. 南方佛教國家

붓다 재세시 이후 불교의 의례는 아쇼카왕이 행한 5년 대회(pancavarsikamaha)를 들 수 있다. 5년 대회(pancavarsikamaha)는 국왕 등이 5년마다 승려를 초대해서 보시 공양하는 것을 말한다. 그 외에도 인도불교·남방불교권에서 발상(發祥)해서 전개된 제의례(諸儀禮)와 중국과 일본의 불교 의례가 있고, 한국도 고유의 의례가 있을 것이다.¹³⁾ 가사공양의식도 남방불교국가와 북방불교국가에 따라서 특징이 있고, 또한 국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남방불교국가의 가사공양의식은 카티나衣(KATHINA-CĪVARA)식이다.¹⁴⁾ 현재에도 스리랑카·미얀마·태국·캄보디아에서 행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남방불교국가는 가사공양의식 중에서 미얀마의 카티나衣(KATHINA-CĪVARA)식을 조사하였다.

미얀마의 카티나衣식은 우기에 행해진다. 미얀마에서는 7월부터 3개월 간에 걸쳐 본격적인 우기(雨

期)에 안거가 이루어진다. 재가도 세속적인 행위를 삼가고, 결혼식이나 득도식 등도 피한다고 한다. 우안거(雨安居)의 첫째 날에는 아침부터 승려에 대하여 성대한 행사가 펼쳐진다. 공양물을 정성스레 준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승원에 간다. 우안거가 끝날 때에도 행사가 집행된다. 그 동안 승려는 일정한 승원에 머물러있고 재가자는 정진일(uboune) 등에 지계(持戒)정진이나 스주에(hswangwei: 시주 및 공양)를 적극적으로 한다. 특히 팔정도(八正道)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것은 석존이 정각을 얻은 후에 행한 설법[初轉法輪]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우안거가 끝날 때에는 신에게 올리는 등불이 온 마을을 비치는 긴 화제[火祭(thadingyut: festival of lights)]를 행하여 기념하는데, 이를 등명(燈明) 축제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때부터 제2의 화제(火祭)인 더사우몽(tazaungmone) 달까지 승려에게 법의[法衣(kahtein:kathina)]를 보내는 의례가 있다. 이 의례는 미얀마의 불교도들에게는 큰 공덕으로 인식되어 있어 법의(法衣) 외에도 승원생활의 필수품 등을 기증하기도 한다.¹⁵⁾

또한 법의를 만들 때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주받은 재료를 가지고 하룻 동안에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¹⁶⁾

남방불교국가에서 현재 재가자(在家者)가 카티나의식을 하는 이유는 첫째는 외출할 때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이며 둘째는 자신의 재산이 불과 물 등에 의해서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셋째는 매일 건강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넷째는 지도자가 되어 존경을 받기 위해서이며 다섯째는 재산이 증대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¹⁷⁾

따라서 현재에도 남방불교국가는 카티나의식에 의해 가사가 만들어져 승려에게 가사가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北方佛教國家

1) 臺灣

대만에서는 수계식 때 가사를 공양한다. 수계식은 부처님의 계법을 널리 선양하고 승가대중이 계

행과 삼의(三衣)와 발우(鉢盂)를 갖추어 신심(身心)을 가다듬고 소양을 진작하여 행해예의(行解禮儀)를 가일층 습득하도록 하고자 하는 데 중지가 있다.

특색은 첫째 계사수승(戒師殊勝)은 국내의 남북전(南北傳)의 고승장로(高僧長老)를 계사로 모시고 경교계율을 전수한다. 둘째는 계기수승(戒期殊勝)은 53일간의 수계기간으로 행해(行解)와 위의(威儀), 규범, 생활교육 등의 과정을 개설(開設)한다. 셋째는 계단수승(戒壇殊勝)으로 가장 엄정하고 근엄한 계단생활(戒壇生活)을 한다.

수계기간은 출가계의 경우 3주이고 재가계는 1주이며 단기출가는 3주이다. 2000년의 경우는 출가계는 3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이고, 재가계는 2000년 4월 17일에서 4월 23일까지이다. 단기출가는 3월 25일에서 5월 16일까지이다.¹⁸⁾

대만에서 수계식 때에만 가사를 공양하는 이유는 승려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제도(濟度)하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가자는 수계받는 사람을 축하하는 의미와 자신의 복을 구하기 위해 가사를 공양한다.

2) 韓國

한국의 가사공양의식으로 가사불사(袈裟佛事)를 조사하였다. 가사불사의 조성방법은 먼저 시주를 구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된다. 이 때 시주와 양공(良工), 그리고 시주 받는 사람의 청정성이 강조된다. 가사를 만든 다음 회향(廻向)할 때에 가사점안 의식(袈裟點眼儀式)을 하여 가사에 생명을 불어 넣는다. 가사점안 의식 때는 불단에 꽃, 과일, 그리고 가사를 올려 놓고 식을 한다. 가사불사는 주로 윤달에 하나, 송광사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음력 3월에 하였다.

한국에서는 불교의식집으로 1938년 安震湖스님께서 종합하여 <釋門儀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북한불교에까지 통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사점안 의식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거불(舉佛)에서 법신·보신·응신의 삼신불께 예경하고 보소청 진언을 한다. ② 어떤 의식을 거행할 때, 그 의식을 행하는 이유나 내력 등을 밝

힌 유치(由致)를 한다. ③ 향과 꽃을 올리면서 증명 법사를 청하는 향화청(香花請)을 한다. 인도의 지공화상과 한국의 나옹과 무학화상을 청한다. ④ 이어 헌좌계·다계 진언 권공을 한 다음 정대계(頂戴偈)를 하고 가사를 받는다. 정대계(頂戴偈)는 가사를 머리에 이고 읊는 계송이다. ⑤ 가사통문불(袈裟通門佛)을 한다. 가사당세계(袈裟幢世界)의 삼품회상(三品會上)에서 여러 부처님께 귀의하여 불사(佛事)의 성취를 기원하는 것이다. 가사당세계(袈裟幢世界)에 귀의합니다. 상품회상(上品會上) 第一金剛幢佛第二阿彌陀佛 第三釋迦牟尼佛 第四彌勒尊佛 第五阿閼佛 第六妙色身佛 第七妙音聲佛 第八香積光佛 第九大通智如來佛 袈裟幢世界에 귀의합니다. 中品會上 第一維衛佛 第二尸棄佛 第三具葉佛 第四拘留孫佛 第五拘那含牟尼佛 第六迦葉佛 第七教主釋迦牟尼佛 가사당세계에 귀의 합니다. 下品會上 第一淸淨法身毘盧舍那佛 第二圓滿報身盧舍那佛 第三千百億化身釋迦牟尼佛 第四九品導師阿彌陀佛 第五當來下生彌勒尊佛, 진심으로 삼보께 원하옵나니 큰 자비로 증명법사가 되어 불사를 성취케 하소서. ⑥ 유치(由致)를 하여 가사공덕에 대하여 연화장 세계의 청정한 범신이신 毘盧舍那佛께 귀의하여 증명을 청한다. 삼화상청(三和尚請)에서 인도의 指空·한국의 懶翁·無學화상을 청하여 증명을 받고 가사점안 피봉식으로 가사점안이 끝난다.¹⁹⁾

가사점안의식의 구성 중 정대계는 원래 승려가 하는 것이었으나 현행의식에는 일상적으로 가사를 수(受)할 때 정대를 한다는 이유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가사불사는 옛부터 으뜸가는 불사(佛事)로 여겨졌다. 이에 대한 경전적 근거는 《佛說袈裟功德經》에 있다. 文殊師利가 “이 염부제 중생이 무슨 인연을 지어야 명(命)과 복(福)을 얻겠습니까?”하고 물었는데, 부처님께서 “가사가 복을 내느니라. 가사는 여래의 옷웃이고 보살의 대의(大衣)이기 때문이다. 입는 이가 능히 복전(福田)을 지움에 시주(施主)한 이는 속히 승과(勝果)를 얻게 될 것이다. 만일 용왕이 가사를 몸에 걸치면 짐승을 해할 독한 마음이 없어지고, 사냥하는 사람이 몸에 걸치면 모든 짐승들이 공경하는 생각을 내게 된다.”라 하여 가사

의 공덕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²⁰⁾

가사불사(袈裟佛事) 때는 삼보를 청하여 증명을 삼기 위하여 증명법사(證明法師)로서 인도의 指空和尚과 한국의 懶翁和尚과 無學和尚이 적힌 증명단(證明壇)을 걸어두고 가사를 만든다.

한국에서 가사점안의식을 하는 이유로, 첫째는 가사를 신앙의 상징으로 삼아 인정식을 갖는 것이고 둘째는 시주의 공덕을 기리고 셋째는 신심과 보리심을 발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다.²¹⁾ 즉 가사점안의식을 통하여 중생에게 승려를 석존과 중생을 연결시키는 매개로 이해시켜 중생을 제도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가사에 상징적 의미를 가장 많이 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사를 중생교화의 한 방편으로 이해했던 것을 알 수 있다.

3) 日本

일본의 법화종과 진언종은 가사공양의식이 없고, 가사를 새로 착용할 때 단지 승(僧)이 석존에게 절을 하기만 한다.

3. 티베트불교국가

티베트의 경우는 현재 가사공양의식은 없다고 한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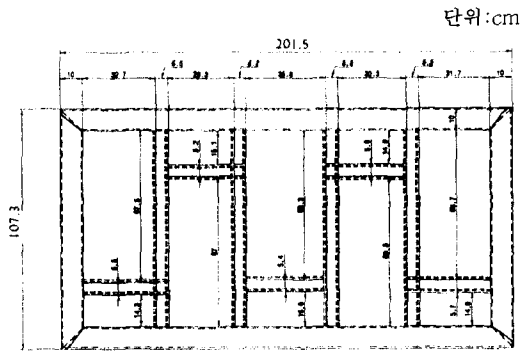
IV. 現行 袈裟의 種類와 特徵

1. 南方佛敎國家

1) 스리랑카

스리랑카는 삼의(三衣)의 가사로 안타회, 울다라승, 승가리를 입는다. 안타회는 [그림 1]과 같이 5條이며 허리띠가 따로 있고, 울다라승과 승가리도 5조이며 승가리는 대의(大衣)로 겹으로 되어 있다.

착장구는 짧은 끈과 고리가 있는데, 가사를 착용할 때 보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사가 바람에 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²³⁾



[그림 1] 스리랑카 5조 가사(안타회)

2) 미얀마

미얀마는 삼의로 중의(重衣)·상의(上衣)·내의(內衣)를 입는다. 중의(sangati)·대의는 승가리의(僧伽梨衣)라고도 한역(漢譯)하지만 미얀마어(語)로 dugot라고 한다. 안타회와 울다라승은 5조로 만들고, 승가리는 7조, 9조, 11조, 13조, 15조, 25조, 75조, 105조이며 조(條)의 수와 재질은 승려의 지위와 의식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신자에 의해 결정된다.²⁴⁾

착장구로는 스리랑카와 같이 가사를 착용할 때 보조역할을 하는 짧은 끈과 고리가 있다.

3) 태국·캄보디아

태국과 캄보디아는 삼의를 입는데, 조수(條數)는 모두 5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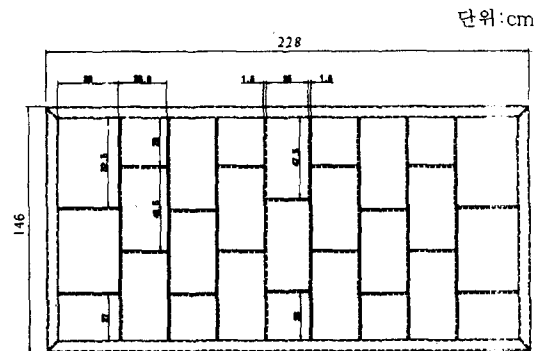
캄보디아의 착의 중 스리랑카와 다른 점은 스리랑카에서는 하의인 안타회와 중의(中衣)인 울다라승과 승가리를 입는 반면, 캄보디아에서는 안타회 대신에 열반승을 입는다는 것이다.²⁵⁾ 그리고 가야 번단나(迦耶蕃但那)라고 하는 요대(腰帶)로 열반승을 묶는다. 위에는 왼쪽어깨가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오른쪽 겨드랑이 밑이 꿰매어져 있고, 오른쪽 겨드랑이 밑에 주머니가 있는 승기자²⁶⁾를 입는다.

2. 北方佛教國家

1) 臺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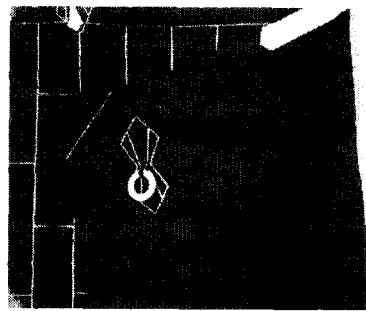
대만의 가사는 피의(被衣: Pi-i)라고 부르고, 5조·7조·9조·25조가 있다. 그러나 5조 가사는 승

려가 착용하는 일은 거의 없고, 재가불교의 거사(居士) 또는 사미가 착용(着用)하고 만의(縵衣)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만의는 장과 단의 단격(壇隔)이 없으므로 일매의 장방향의 포(布)로 구성되어 있다. 7조는 수계(受戒)를 받은 비구(比丘), 비구니(比丘尼)가 이용하는 가사로 2장(長) 1단(短)이다.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9조는 3장 1단으로, 수계해서 10년 이상된 승려가 착용할 수 있다. 25조는 4장 1단이며 주지(住持) 또는 특별한 의례의 경우에 도사



[그림 2] 대만의 9조 가사

(導師)가 착용할 수 있다. 착장구는 [사진 1]과 같이 플라스틱 환과 고리를 사용하여 착용이 간편하며 끈은 없다. 가사가 처음 만들어진 인도에서는 끈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끈을 사용하여 매는 것을 고안하였다.²⁷⁾ 이것이 구(鉤)로 변했고, 그 모양은 원환(圓環)으로 나타난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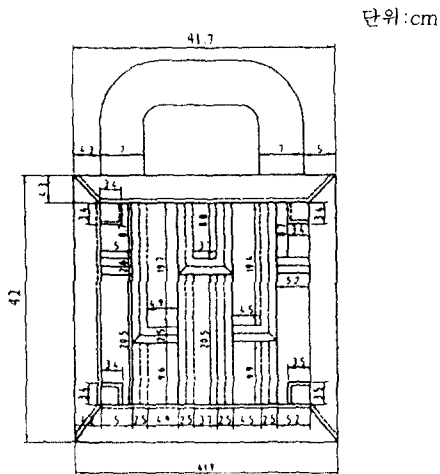


[사진 1] 대만 25조 가사의 착장구 (조계사 제공)

2) 韓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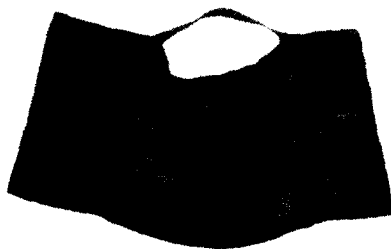
(가) 曹溪宗

《종단법령집(宗團法令集)》²⁹⁾의 의제집(衣制法)을 보면, 조계종에서 가사는 안타회·울다리승·승가리를 입는데, 안타회는 5조, 울다리승은 7조, 승가리는 9조·15조·25조로 한다. 만의(縵衣), 안타회(安陀會), 울다리승(鬱多羅僧)은 윤가사식(輪袈裟式)으로 한다. 9조는 법계(法階) 5급(級)이상인 견덕(見德)의 경우 착용하고, 15조는 법계 3급인 종덕(宗德) 이상이 착용한다. 25조로 法階 1급인 대종사(大宗師) 이상이 착용하는 가사이다. 조계종의 유일한 대가사는 주로 큰 법요식을 거행할 때 착용하되, 가사가 흘러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리와 매듭을 가사에 달았다. [그림 3]은 5조 가사로 목에 걸어서 가슴 앞에 착용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 같은 형의 5조 가사를 낙자(絡子), 괘락(掛絡)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림 3] 한국 조계종 5조 가사

착장구는 두 종류가 있는데, [사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가사는 위 양쪽에 끈[櫻子]을 단다. 그



[사진 2] 한국 조계종 반가사(조계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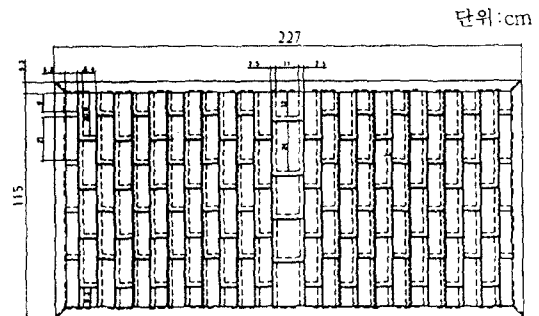
리고 [사진 3]에서 나타나듯이 매듭과 고리로 고정시키는 것이 있다.



[사진 3] 한국 조계종 가사의 착장구

(나) 太古宗

태고종의 가사는 25조에서 9조까지 있다. 대가사의 종류는 조의 수에 따라 하품, 중품, 상품으로 나누어지는데, 하품은 9조의 하하품, 11조의 하중품, 13조의 하상품으로 2장 1단이며, 보살계를 받지 않은 사미가 주로 입는다. 중품은 15조의 중하품, 17조의 중중품, 19조의 중상품으로 3장 1단이며 법계가 대신 이상인 승려들이 착용한다. 상품은 21조의 상하품, 23조의 상중품이 있다. 그리고 25조는 [그림 4]와 같이 상상품으로 4장 1단이며 법계가 대덕이상인 승려들이 착용한다.



[그림 4] 한국 태고종 25조 가사

착장구는 매듭과 고리를 사용하기도 하고 같은 색의 끈[櫻子]을 달아 편단우견이 되도록 걸치거나, 각각의 끈을 왼쪽 윗가슴 부분에서 묶는다.

(다) 天台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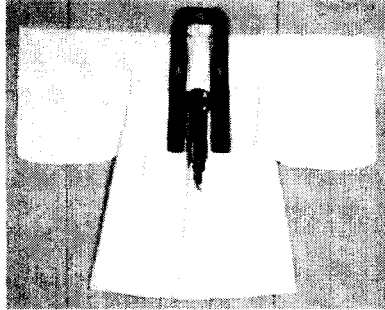
천태종의 가사는 9조부터 25조까지 있다. 9조는

6급 법계인 정법승을 품수한 승려들이 착용하는 가사이다. 조와 장과 단은 규칙적으로 되어 있다. 13조로 5급 법계인 대덕을 품수한 승려들이 착용하는 가사이며, 21조 상품가사는 2급 법계인 종사를 품수(稟受)한 승려가 착용하는 가사로, 대각국사의 가사를 토대로 하였다. 천태종의 25조 금란가사는 1급인 구인사 제 2대 남대총 대종사가 착용하던 가사로서 대각국사의 가사를 토대로 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제 48호 이만봉 스님의 가사도를 원본으로 제작한 것이다. 종정스님이 착용한다.

착장구는 9-21조는 끈이며 25조는 천태종의 중기가 새겨진 쇠고리와 걸개를 사용한다.

(라) 眞覺宗

진각종은 다른 종단과 달리 전통적 양식의 가사는 없고 낙자로 되어 있다. 낙자는 행계(법계)에 따라 글자[문양], 글자 위치, 색깔이 다르다. 이것은 일본의 윤가사(輪袈裟)와 흡사하다. [사진 4]와 같이 목에다 걸어서 앞으로 내리고 양쪽은 수다라(修多羅) 즉 매듭으로 된 줄로 연결하고 있다. 그리고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해 준다는 의미로 금강선(金剛線)이라는 일반 신도들이 착용하는 가사가 있다.³⁰⁾



[사진 4] 한국 진각종 가사(조계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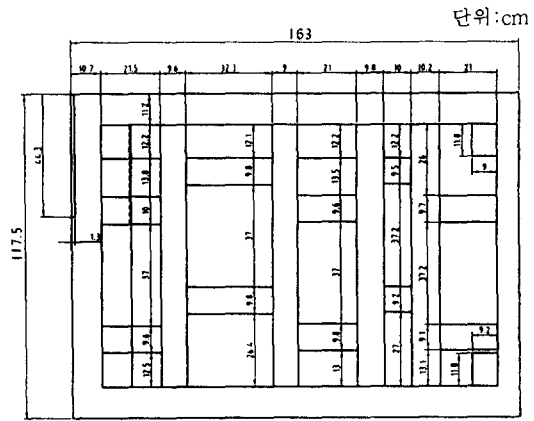
3) 日本

(가) 法華宗

법화종의 법복작법(法服作法)³¹⁾을 보면 가사에 9조, 7조, 5조, 절(折)5조, 소(小)5조가 있다. 9조는 엄숙한 의식을 거행할 때에 대승정(大僧正), 권승정(權僧正)의 경우에 한(限)해서 착용한다. 대의(大衣)라고도 칭하고 포상(袍裳) 위에 입는다. 7조는 승정(僧正) 이하의 교사(教師)가 착용하는 것으로

최고의 의복으로서 인정된다.

7조는 [그림 5]에서 나타나듯이 동일한 조각을 2장과 1단으로 기워서 7조로 만든 것으로 무늬와 조각의 색은 승계(僧階)에 따르는데, 종규(宗規)로 정(定)한다. 5조는 7조 다음으로 사용하는 가사이다. 절 5조는 5조를 겹쳐서 길게 접은 형태이며 거사의(居士衣) 도복(道服) 등에 착용하여도 된다. 소5조라고 칭하는 것은 승속(僧俗)이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개종(開宗) 700년 기념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림 5] 일본 법화종 7조 가사

착장구는 길고 짧은 두 개의 끈이 있다. 왼쪽 어깨에 '후배(後拜)'를 붙여서 거기에 작은 두 줄로 된 술을 늘어뜨린다. 또 왼쪽 어깨를 덮는 7조의 끝을 끈으로 묶어 유륜(乳輪:환)에 붙여서 '가라(伽羅)'에 있는 큰 끈을 가지고 고정시킨다.

(나) 眞言宗

진언종에서는 대의, 7조, 5조, 납가사(納袈裟)³²⁾, 중가사(中袈裟)³³⁾, 문백(紋白), 소5조³⁴⁾, 정호³⁵⁾(精好: 白精好地의 平5條)가사를 입는다.³⁶⁾ 7조는 납의(衲衣), 청갑(靑甲), 여법의(如法衣)가 있다. 여법의는 울다리승이라 하기도 한다. 5조는 문백(紋白)가사가 있다. 문백가사는 원내도행의(院內道行衣)와 도행작무의(道行作務衣)라고도 하며 여행과 사찰 내에서의 실내착(室內着)과 작무의(作無衣)로서 사용되었다. 또한 예배(禮拜)·풍송(諷誦)·제식(齋食) 등에 쓰이는 소위 상복의(常福衣)였다. 현재에는 5조 가사라고 하면 앞에 서술한 문백(紋

白)이 많이 사용되고 7조 가사는 여법의(如法衣)가 쓰여진다. 이 명칭은 불제(佛制)에 따라서 재봉되어진(결국 如法)날로부터 적용되어졌다. 그 외에도 대의라고 일컬어진 가사가 있지만, 대승정(大僧正)이 제자에게 법을 전수(傳授)할 때에만 착용되고 일반승려(凡僧)의 착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착장구는 끈으로 되어 있다.

북방불교국가 중에서 중국은 조수가 많았으며 일본은 적었다. 그 이유는 일본의 鎌倉時代에 천태, 진언은 7조를 이용한 데 반하여 선종에 있어서는 9조 이상의 대의를 주로 입었기 때문이다³⁷⁾. 그리고 일본 曹洞禪의 개조(開祖)인 道元禪師가 지은 「正法眼藏」에 이백오십조와 팔만사천조가 기록되어 있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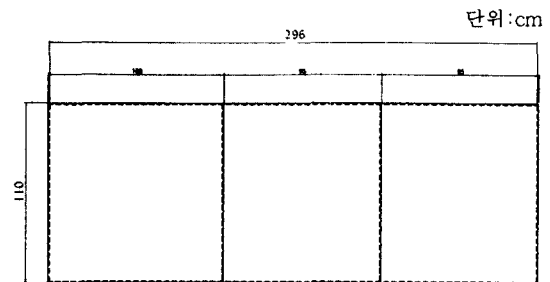
3. 티베트佛敎國家

井筒雅風에 따르면 티베트불교국가의 가사는 모두 같은 형태이다.³⁹⁾ 티베트불교국가의 가사는 하의, 3조, 7조, 23조가 있다. 티베트의 하의는 4조로 되어 있으며 원통형인데 티베트어로는 쉐딕(Santap)이라 한다. 몽골은 하의가 5조 안타회이며 몽골어로는 단유에라고 한다. [그림 6]에서 나타나듯이 3조는 장과 단이 없으며 홑겹으로 평상시에 입는 대가사이다. 티베트어로는 쟈(Zen)이라고 하며 몽골어로는 단유에라고 한다. 7조는 사미계를 받은 후 평상적인 의식 때

사용하는 것으로 티베트어로는 남잘(Namzal)이라고 한다. 23조는 의식용 대가사로서 음력 15일 포살법회⁴⁰⁾ 때 사용하며 비구계를 받은 승려만 착용하는데 티베트어로는 남작(NamJak)이라고 한다. 평상적인 의식 때는 쟈(Zen)과 남잘을 착용한다.

몽골은 고유복식인 우란기를 입고, 단유에를 허리에 걸쳐 입는다. 그 위에 7조 가사를 편단우견으로 입는다. 평상시에는 이 7조 가사를 생략해서 오헨지만을 몸에 걸치며, 더욱 간편하게 입기 위해서는 속복 위에 오헨지를 좌견으로부터 허리에 끈으로 두르나 옛날에는 이러한 착의는 위법이었다고 한다. 또는 7조 가사를 편단우견으로 입고 오헨지를 통견으로 걸치면 정장이 된다.⁴¹⁾

아시아지역 가사의 종류를 비교하여 <표 1>에 나타내었다.



[그림 6] 티베트 장·단이 없는 가사(zen)

<표 1> 아시아지역 가사의 종류

	국 가	종 류	착 장 구	비 고	
남방 불교국가	스리랑카	삼의(5조)	끈과 고리	·착장구는 보조역할	
	미얀마	삼의(안타회: 5조, 울다라승: 5조, 승가리: 7·25조, 75조, 105조)		·착장구는 보조역할	
	태국	삼의(5조)	없음	·착장구 없음	
	캄보디아	삼의(5조)		·열반승 있음	
북방 불교국가	대만	5·7·9·25조	환과 고리	·5조는 신도용 가사	
	한국	조계종	낙자, 반가사, 5·7·9·25조	매듭과 고리	·신도용 가사 없음
		태고종	반가사, 9·13·17·21·25조	끈	
		천태종	9·13·21·25조	끈, 쇠고리와 걸개	
	일본	진각종	낙자, 금강선	매듭	·금강선은 신도용 가사
		법화종	5·7·9조, 절5조, 소5조	끈	·소5조는 신도용 가사
티베트 불교국가	티베트·몽골	안타회, 조만 있는 가사, 7조, 23조	없음	·장과 단이 없는 가사 있음	

V.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아시아지역에서 현재 착용하고 있는 각국의 가사에 대하여 가사공양의식·가사의 종류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남방불교국가, 북방불교국가, 티베트불교국가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가사공양의식은 현재 남방불교국가는 석존在世時부터 내려온 카티나衣式을 거행하고 있다. 북방불교국가에서는 카티나衣식은 거행하지 않고 있다. 북방불교국가인 중국은 수계식, 한국은 가사불사 때 가사점안의식을 마치고 가사를 승려에게 공양한다. 일본과 티베트불교국가는 가사공양의식이 없다. 이것은 북방불교국가는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와 기후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그 나라에 맞는 의식으로 변화했기 때문일 것이다. 남방불교국가의 카티나衣式 때는 가사를 신도가 보는 앞에서 공양을 하는 반면, 중국과 한국에서는 신도의 시주에 의해서 가사공양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가사를 신도 앞에서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한국의 가사점안의식은 한국불교가 영향을 받았다는 중국과, 한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인 일본에서 현재 행해지지 않는 의식이라는 점도 주목되는 사실이다.

카티나衣식과 가사불사의 공통점은 바느질을 하루만에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한을 정한 것은 수행하는 승려들에게는 가사공양에 대한 집착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신도들에게는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불교의식은 처음에는 석존에 대한 순수한 예경의 뜻을 나타내었으나, 중생들이 붓다에 대한 예경은 곧 공덕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됨으로써 성격이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남방불교 국가에서는 재가자가 현명한 승려에게 가사를 공양함으로써 복을 쌓게 된다는 인식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에 반해 북방불교국가는 대승불교권으로, 가사가 실용복의 역할보다는 장엄복으로 중생교화 차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가사를 점안함으로써 생명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가사를 불상과

같은 위치로 격을 높였던 것이다.

가사의 종류는 남방불교국가의 가사는 미얀마의 승가리를 제외하고 5조로 되어 있다. 앞장에서 언급한 대로 카티나衣식에서 가사를 5조로 하여 승려에게 가사공양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북방불교국가 중에서 중국은 조수가 많았으며 일본은 적었다. 티베트불교국가는 조만 있는 가사, 7조, 23조가 있다.

따라서 북방불교국가인 대만과 한국의 가사가 진각종을 제외하고 5-25조까지 있는 것은 같은 선종계통이기 때문이며, 일본의 경우는 5-9조로 되어 있는데 교종계통인 법화종과 진언종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조수가 낮았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미얀마의 가사에 조수(條數)가 많은 것은 11세기 무렵 근본불교가 미얀마에 확립되기 전에 대승불교 중 선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캄보디아에서는 만의로 열반승을 착용하고 있으며 타이와 미얀마에서는 안타회와 열반승을 같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스리랑카는 삼의를 충실히 지키기 위하여 만의인 열반승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수로 볼 때 가사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나라는 스리랑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진각종은 각각 만의, 소5조, 금강선을 만들어 신도용 가사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승(僧)과 속(俗)이 따로 있지 않다는 대승의 이치를 복식생활을 통해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착장구의 사용 여부도 남북방이 다르다. 남방불교국가는 착장구가 있어도 보조역할에 불과하다. 북방불교국가에서 착장구가 발달한 것도 가사 속에 민속 고유의 의복을 입고 가사를 단단히 고정시킬 도구가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방에서 북방으로 오면서 가사공양 의식과 가사의 종류도 중생제도라는 대승불교의 이념에 맞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사의 용도가 실용복에서 장엄복으로 이행(移行)했다는 사실에서, 불법을 상징하는 방편으로까지 가사의 지위를 승격시킨 일면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대승불교의 모든 출가자(出家者)와 재가자(在家者)가 함께 성불하기를 기원하는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참고문헌 및 미주

- 1) 《四分律》 권 제3, (大正藏 22)
- 2) 《四分律》 권 제43권, (大正藏 22)
- 3) 《羯磨》, (大正藏 22)
- 4) 金東湖, 佛心과 修行功德, 서울: 京仁文化史, 1972
- 5) 마스다니후미오/ 박경준, 근본불교와 대승불교, 서울: 대원정사, 1988
- 6) 陸楨培, 戒律論, 서울: 東國大學校 東國譯經院, 1988
- 7) 목담대중사 문집 간행회, 목담대중사 문집, 서울: 민족사
- 8) 佛敎法要集, 서울: 弘法院, 1982
- 9) 이은구, 미얀마불교의 이해, 서울: 세창출판사, 1996
- 10) 宗團法令集, 大韓佛敎曹溪宗總務院, 1995, p.29-1
- 11) 진각종해인행, 불교진각종 수계관정불사 계본, 서울: 진각종, 1980
- 12) 平川彰외 2인/ 정승석, 대승불교개설, 서울: 김영사, 1989
- 13) 한정섭, 불교의식의 바른 이해, 서울: 삼원사, 1995
- 14) 法華宗 法式作法要全, 日本: 本能寺出版部, 1960
- 15) 保刈禎子, やさしい「御袈裟」の話, 東京: 近代文藝社, 1994
- 16) 生野善應, ビルマ佛敎, 東京: 大藏出版株式會社, 1975
- 17) 井筒雅風, 袈裟史, 東京: 雄山閣, 1982
- 18) 井筒雅風, 法衣史, 東京: 雄山閣, 1982
- 19) ウ・ウェーフシラ, 南方上座部 佛敎儀式集, 東京: 中山書房佛書林, 1986
- 20) 朴虎南, “佛敎律藏의 成立과 大乘律의 發達 研究”, 韓國精神文化 研究院 韓國學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2
- 21) 安明淑, “袈裟의 衍義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0
- 22) 李順德, “한국 가사에 대한 연구”, 嶺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6
- 23) 任榮子, “한국 종교복식에 관한 연구”,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9
- 24) 那須政隆, “法衣について”, 智山學報 第9輯, 1961
- 25) 山口惠照, “佛敎儀禮の道”, 日本佛敎學會年報, 第43號, 京都: 日本佛敎學會, 1977
- 26) 永久岳水, “袈裟の研究”, 宗學研究 第12號, 東京: 曹洞宗宗學研究所, 1971
- 1) 任榮子, 한국 종교복식, 서울: 亞細亞文化史, 1990
- 安明淑, “袈裟의 衍義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0
- 李順德, “한국 가사에 대한 연구”, 嶺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6
- 井筒雅風, 袈裟史, 東京: 雄山閣, 1982
- 永久岳水, “袈裟の研究”, 宗學研究 第12號, 東京: 曹洞宗宗學研究所, 1971
- 2) 승려가 된 뒤로 부터 치는 나이, 한 여름 동안을 안거(安居)하면 한 살로 쳐서 나이가 얼마라고 일컬음.
- 3) 15일과29일[또는 30일]에 모여 승려가 서로 설계(設戒)하고 참회하는 의식
- 4) 雨期の 뜻으로 인도의 降雨期 3개월간에 실시되는 佛敎僧團의 특수한 연중 행사를 말한다. 그런데 지방에 따라서는 雨期가 같지 않아서, 前·中·後 3종의 안거 기간이 인정되고 있다.
- 5) 夏安居의 마지막 날 자신이 범한 罪過를 비구대중에 대해 告白하고 이것을 懺悔하는 것을 말한다.
- 6) 世俗의 생활 인연을 여의고 桴자의 수행생활에 들어 간다는 뜻
- 7) 불문(佛門)에 들어가서 승려가 된 사람에게 계율(戒律)을 주는 의식. 비구는 250, 비구니는 348계를 받음.
- 8) 많은 승려의 뜻, 또는 남자 승려·여자 승려·남자 신도·여자 신도.
- 9) 《四分律》 권 제3 (大正藏 22, pp.877-878)
- 10) 生野善應, ビルマ佛敎, 東京: 大藏出版株式會社, 1975, p.270
- 11) 《四分律》 권 제3 (大正藏 22, p.878)
- 12) 《羯磨》, (大正藏 22, p.1058)
- 13) 山口惠照, “佛敎儀禮の道”, 日本佛敎學會年報, 第43號, 京都: 日本佛敎學會1977, pp.1-2
- 14) ウ・ウェーフシラ, 南方上座部 佛敎儀式集, 東京: 中山書房佛書林, 1986, pp.71-74
- 15) 이은구, 미얀마불교의 이해, 서울: 세창출판사, pp.131-132
- 16) ウ・ウェーフシラ, 앞의 책, p.63
- 17) 위의 책, p.62
- 18) 불교전래 2000년 기념 불광산 국제 삼단나한제회 수계산림 통고
- 19) 佛敎法要集, 서울: 弘法院, 1982, pp.414-428
- 20) 金東湖, 佛心과 修行功德, 서울: 京仁文化史, 1972, pp.465-467
- 21) 한정섭, 불교의식의 바른 이해, 서울: 삼원사, 1995, p.19
- 22) 웨딩스님, 서울 구룡사 거주, 2000년 6월 3일, 본인과 면담
- 23) 生野善應, 앞의 책, p.151
- 24) 保刈禎子, やさしい「御袈裟」の話, 東京: 近代文藝社, 1994, p.27
- 25) 범어 nivāsana, 泥洹僧, 闍修羅(범어 kusū=laka)라 하며 번역하여 內衣라 한다.
- 26) 범어 sarnkaksika 비구니가 입는 5衣의 하나, 흔히 祇支라 약해서 말하고 插腋衣·覆肩衣등으로 번역한다.

- 27) 井筒雅風, 法衣史, 東京: 雄山閣, 1982, p.41
- 28) 那須政陵, “法衣について” 智山學報 第9輯, 1961, p.25
- 29) 宗團法令集, 大韓佛教曹溪宗總務院, 1995, p.29-1
- 30) 진각종해인행, 불교진각종 수계관정불사 계본, 서울: 진각종, 1980
- 31) 法華宗 法式作法要全, 日本: 本能寺出版部, 1960
- 32) 납의 가운데 사방에 葉을 겹게 물들인 紋絹을 쓴 것을 말한다.
- 33) 威儀5條
- 34) 麻 또는 布의 5條
- 35) 白精好地の 平5條
- 36) 井筒雅風, 法衣史, 앞의 책, p.363
- 37) 井筒雅風, 袈裟史, 앞의 책, p.152
- 38) 위의 책, p.30
- 39) 위의 책, p.161
- 40) 동일지역 내의 비구들이 보름마다 모여서 지나간 반달간에 행위를 반성하고 죄가 있으면 고백 참회하는 행사로 매월 滿月과 新月(15일·30일)에 행한다.
- 41) 井筒雅風, 法衣史, 앞의 책, p.165